# 유익관계는 슬픔 시한폭탄

## (에스겔 27:1~36)

26.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물에 이르게 함이여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27.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여
28.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29.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30.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며 재 가운데에 뒹굴며
31.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32.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33.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여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34.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음이여
35.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36.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여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유익한 관계는 슬픔 시한폭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유익한 관계는 슬픔 시한폭탄'

1960년대 초 부산에 최홍기라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3개월간 노숙자 생활을 하며 오아시스라는 레코드사에 가서 취직을 부탁하며 강짜를 부려서 드디어 사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5년 어느 날 장충동에 있는 녹음실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는데, 당일 녹음 예정이었던 가수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최홍기가 대신 노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된 최홍기는 가수로 활동하게 되었고, 1969년에 최초의

히트곡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에 대세였던 가수는 바로 트로트계의 남진 씨였습니다. 그런데 남진 씨가 군대를 간 사이에 가요계로 비집고 들어온 최홍기가 남진의 라이벌로써 활동하게 됩니다. 최홍기의 예명이 바로 그 유명한 나훈아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잠깐 살펴봅니다.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 노래가 발표되고 50년 가까이 지나며 풍습도 바뀌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헤어져서 괴로워 울기보다는 헤어지지 못해 괴로워하는 관계가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 지나고 5년이 지나자 이제 제발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부관계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반은 헤어질까봐 울고 또 반은 헤어지지 못해서 웁니다. 노래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씨앗은 꼭 남녀 사이의 사랑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기쁨의 씨앗이지만 곧 눈물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생활도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마음을 주고 손대서 하는 모든 일이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관계를 맺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눈물의 씨앗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맺는 관계를 마치 슬픔 시한폭탄이라도 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맺으려는 모든 관계가 유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유익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되는 관계가 있고 혈연이나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처럼 시작된 후에 유익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는 유익이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이 맺는 관계는 모두 슬픔 시한폭탄이 됩니다.
눈물의 씨앗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지만, 슬픔 시한폭탄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익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관계는 반드시 슬픔으로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비단 물질적인 이익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이익까지도 유익이라는 단어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나면 뭔가를 배우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 만나면 그저 기쁜 대상이 있습니다. 슬프거나 괴로울 때 술친구가 되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도 유익은 갖가지 형태로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유익이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인

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채워지기 위해 엄청난 흡입력을 작용합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모든 관계에서 유익을 추구함으로써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유익을 기대합니다. 대상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마음의 공백이 채워짐으로써 만족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슬픔과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가 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던 노래 가사를 이러한 관점에서 개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관계가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 슬픔의 시한폭탄이라 말하겠어요 / 언젠가 당신이 내게 유익이 되리라 기대했지요 / 그런데 웬일인지 서로가 괴로워 울고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는 모든 관계가 슬픔 시한폭탄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는 관계일지라도 사실은 마음이 공백 상태인 채로 관계하는 유익추구입니다. 유익추구는 곧 마음 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채워짐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여겨지면 관계를 맺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더라도 마음을 채울 수 없기에 언젠가는 슬픔 시한폭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슬픔 시한폭탄이 되지 않는 축복의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만족과 기쁨을 기대하면서 관계하는 한 슬픔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만족하고 기쁜 상태에서 관계한다면 복된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의 연장선상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사업이든 목회든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 이루어진 관계들은 유익추구가 되고 언젠가 터지고 마는 슬픔 시한폭탄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1-11절까지는 두로를 거대하고 화려한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온갖 훌륭한 가치의 물건들이 들어있고 배를 움직이기 위해 탁월한 인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2-25절까지는 이러한 두로가 누리던 지위와 부귀영화의 출처가 나타납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3개 대륙의 연안도시를 잇던 연결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연안도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내륙지방에까지 두로의 영향력은 미쳤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연결망을 토대로 수없이 많은 무역품들이 거래되었고 그로인해 생겨난 수익이 두로를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자면 본문이 애가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장황할 정도로 두로를 칭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항구도시로 조선술이 유명했습니다. 두로가 다시스에 배를 주문해서 사들인

것입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도 두로를 두고 '열국의 시장'으로 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절부터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배인 두로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에 바다에서 침몰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애가가 시작됩니다. 특히 31~35절을 보면 두로의 멸망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온 세계의 슬픔이 되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두로가 세계를 연결하는 관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로의 멸망이 슬픔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로는 언젠가는 터질 슬픔 시한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두로가 누리던 영화로움은 적어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상에서는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귀영화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치밀한 연결망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았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찬 관계야 말로 두로의 영화로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로 인해 두로는 망하게 되고 지중해 전체에 슬픔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동기는 유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관계는 또한 슬픔 시한폭탄이기도 합니다. 두로가 추구한 유익은 돈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도 유익의 추구가 발생합니다.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길 바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추구하려 할 때의 관계는 슬픔 시한폭탄이 됩니다.
두로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배에는 각 나라에서 들어온 귀중한 가치들이 가득했고, 또 배를 움직이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할지라도 지중해의 크기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치 지중해와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것은 두로의 배를 침몰시킴으로써 지중해를 채워보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로가 거대하고 화려한 배일지라도 지중해가 채워지는 일은 없듯이, 인간의 마음도 유익을 추구함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익을 추구함에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살아갑니다.
배우자에게 유익을 추구한다면 당장은 행복한 부부관계일지라도 머지않아 지중해에 던져진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기대한 만큼 슬픔은 커집니다. 부부관계 뿐만이 아니라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상대나 과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중해에 빠진 두로와 마찬가지로 한 점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기대함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유익을 기대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절망과 슬픔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로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자녀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 생애를

덮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면 배우자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 생애를 덮을 것입니다. 사실 자녀든 배우자든 나의 마음을 채움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지중해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폭탄이 되어 이윽고 터져서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두로의 침몰은 곧 하늘의 연결이 끊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지면의 모든 나라와는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천국과는 연결이 끊어져있었던 것입니다. 두로의 연결망 같이 선민의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이루어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연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에서 맺는 모든 관계는 슬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를 끊는 방법은 호적을 파내는 것도 아니고 가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관계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아담이 처음 눈을 떠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관계들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있기에 타인에게서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두로를 통해 거래되었던 나라들의 다양한 특산물들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통해 생겨나는 다양한 유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특산물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수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익을 주는 관계는 주면 줄수록 기쁨과 행복이 커집니다.

마음이 공백인 상태에서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는 슬픔 시한폭탄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었으니 그 기대는 슬픔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로라는 배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지중해를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로 관계를 맺게 되면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설령 상대가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핍박하더라도 평강과 기쁨은 깨어지지 않고 더해질 뿐입니다. 내게 있는 특산물인 하나님을 수출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에게 임할 모든 은혜가 다 내게로 오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더해지고 평강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 지중해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진 연결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맺어졌던 관계들을 십자가를 통해 끊어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대상으로써만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나님의 첫 만남을 회복하는 것이고, 인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묶인 다음에 하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 유혹을 받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맺었던 모든 관계들이 슬픔 시한폭탄임을 명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폭탄이 터지기 전에 마음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낼 때에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난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에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곧바로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언젠가는 터져버릴 슬픔 시한폭탄을 안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마음에서도 하나님과 첫 번째 대상으로 묶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계속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과 묶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제까지 맺어왔던 관계의 성격도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인격의 특산물인 하나님을 전달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재화도 공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비누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누라는 생산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의 업무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보조수단이 됩니다. 월급조차도 보조수단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나의 지정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판검사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판검사가 그 자리를 통해 유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반드시 슬픔을 동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유익을 추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맺어왔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담의 첫 날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배우자

도 자녀도 친구도 하나님을 수출하기 위한 대상이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유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살면서 슬픔 시한 폭탄의 삶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삶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수출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수출국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외한 채 두로가 중심되어 맺은 지중해 연결망 같은 연결들이 다 끊어지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단단히 묶인 채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관계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의 수출국으로서 하나님을 수출하는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